

영화·드라마의 감동 독서 열풍으로

'서울의 봄'·'고려거란전쟁' 등 인기 "실제 역사 어땠는지 알아보자" 에스24, 관련 도서 판매량 급증

영화와 드라마 인기로 힘입어 관련 도서들이 판매가 급증하는 이른바 '스크린셀러'와 '드라마셀러'의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영화 '서울의 봄', '길 위에 김대중', '노랑: 죽음의 바다',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이 인기를 끌면서 책을 매개로 역사를 깊이있게 읽고자 하는 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에스24는 영화 '서울의 봄', '노랑: 죽음의 바다' 개봉과 함께 역사 분야 도서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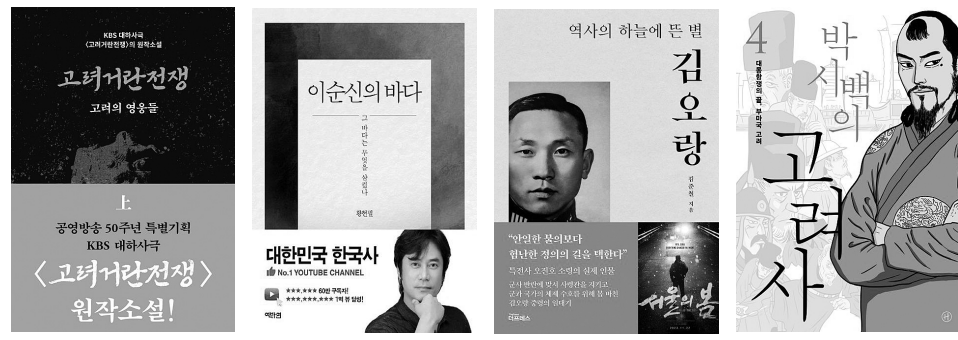
지난해 4분기 '역사' 분야 월별 판매량 집계 결과 10월에 전월대비 10.4%, 11월 26.8%, 12월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화와 관련한 도서 판매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영화 '서울의 봄', '노랑: 죽음의 바다' 각각 개봉일을 기점으로 관련 도서 판매량이 전주 대비 85.3%, 86.65 대폭 증가했다.

또한 올해 1월 개봉한 다큐 영화 '길위에 김대중'도 개봉 1주차에 전주 대비 85.75% 관련 도서 판매가 증가했다.

김준철 작가가 쓴 '역사의 하늘에 뜬 별 김오랑'은 '서울의 봄' 흥행 이후 12월 출간됐는데, 바로 '한국사' 분야 베스트셀러 15위에 올랐다.

책은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기 위해 반군 세력과 교전하다 사망한 김오랑 중령의 일대기를 담았다. 참 군인으로 죽어서 '정의의 길'이 되었던 그는 군인의 책임감을 몸



소 실천했다. 또한 35년만에 재출간된 김오랑 중령의 아내 백영옥 여사의 자전적 에세이집 '그래도 봄은 오는데'도 올 1월 에스24 그레제본소 북판당에서 103% 펀딩 달성률을 기록했다.

에스24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의 봄'이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작년 역사서 전체 구매자에서 '서울의 봄'과 관련 20대 구매자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책 '이순신의 바다'는 '노랑: 죽음의 바다' 개봉 1주차에 전주 대비 판매량이 160% 증가했다. 1억 뷰 조회수를 기록한 황현필의 강의를 묶은 책으로, 이순신의 일생과 7년간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7년의 전쟁 중 얽히고설린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다양한 인간군상을 보여주며 후세에도 영웅으로 기억되는 이순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초점을 맞췄다.

에스24 관계자는 '노랑: 죽음의 바다'와 관련 도서 구매자는 40대가 5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길 위에 김대중' 관련해서는 50대와 60대 구매자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드라마와 연동된 '드라마셀러'의 판매량도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역사 드라마의 인기와 맞물리면서 역사를 다룬 책이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대표적인 도서가 '고려거란전쟁'.

지난해 11월 방영된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의 영향으로 동일 제목의 도서 김승수 작가의 '고려거란전쟁' 판매도 급증했다. 방영 첫 주 '고려거란전쟁' 판매는 219% 증가했으며, 고려시대 역사서 판매량은 전주 대비 59.3% 상승했다. 또한 박시백의 '박시백의 고려사 4'는 드라마 방영과 함께 지난해 11월 둘째주 '한국사' 부문 베스트셀러 8위를 기록했다.

에스24 관계자는 "드라마의 경우 방영 첫 주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도서도 인기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화와 드라마에서 책으로 이어지는 선택은 실제 당대 역사가 어땠는지 깊이있게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과 맞물려 독자들의 발걸음이 서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상을 향한 애정과 이면에 깃든 비애

황형철 시인, 시집 '그날 밤 물병자리' 발간...50여편 수록

"4년 만에 세 번째 시집을 펴냈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번에는 퇴고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집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감이 무겁게 저를 짓눌렀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스스로 작품이 만족스럽지 못해 더 퇴고를 열심히 한 측면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집 '그날 밤 물병자리' (시인의일요일)를 펴낸 황형철(사진) 시인은 밀어두었던 숙제를 끝낸 것처럼 보였다.

모두 50여 편의 작품이 수록된 시집은 특유의 서정과 울림을 선사한다. 그만큼 시를 풀어내는 심상이 애잔하면서도 담백하다는 반응일 터다.

전체적으로 시는 자연, 역사, 일상 등 삶의 다양한 부분을 노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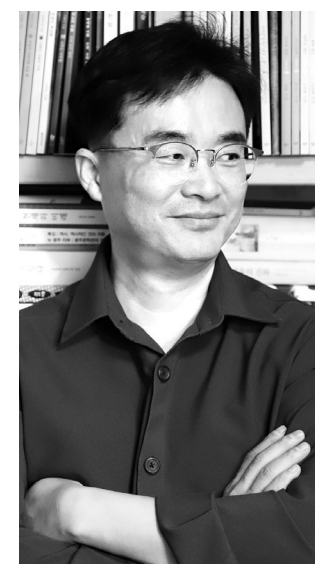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역사를 향한 마음, 일상을 대면하는 부분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황 시인은 "평소에 자연의 순환, 질서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며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생명이나 순환 등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시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제주'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많다는 점이다. 시인은 몇 해 전 제주에 빠져들면서 그곳의 자연과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지난 2015년 가족들과 한달 살기를 하면서 진짜 제주를 보게 됐다"는 그는 "제주에 대한 관심이 자연, 사람, 4·3이라는 역사로 전이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3은 5·18, 그리고 미안마 등으로 연결된다"며 "시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도 있는 만큼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렀는데 한눈에 봐도 우아한 자태에 가 보고 싶은 속내 숨길 수 없지만 그래도// 동백이 피었을까 제일 궁금스럽다// 벗꽃이 활짝 전봉로나 녹산로 소식은 심심찮게 오고 오동도나 선운사 같은 전국적 명소도 있지만 비할 게 아니고// 동백은 향기가 없어 빛으로 새를 불러 모은다지// (중략)/ / 남쪽 섬에서 연락이 오나 안 오나 빨강계 속을 태우고 있다..."

위 시 '동백이 피었나 안 피었나 금금은 하고'는 화연사 흥매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오동도나 선운사도 아닌, 누추한 뜰을 배경으로 피어있을지 모를 동백을 그리는 마음이 그려진다. 대상을 향한 그윽한 애정 이면에 어떤 비애 같은 정서가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성호 문학평론가는 "황형철 시인은 아름답고 지극하고 속 깊은 서정을 이렇게 풍부하게 건네주었다. 최근 우리 시단이 거둔 일대 수확이다"고 평한다.

한편 황 시인은 1999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2006년 계간 '시평'으로 등단했다. 시집 '바람의 겨울', '사이에 좋게 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봄 부르는 클래식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다음달 24일 광주예술의전당

예술가가 선보이는 첫 작품이 대략적인 그의 평판과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면, 두 번째는 예술가에게 신뢰를 더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중요한 기점일 것이다.

두 번째 작품의 부진을 의미하는 소포모어 징크스(sophomore jinx) 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후속작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381회 정기연주회 'No.2'를 2월 24일 오후 5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연다. 이번 연주회는 라흐마니노프, 시벨리우스의 2번 교향곡을 주제로 펼쳐지며 지휘자 이병욱과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협연자로 출연할 예정이다.

공연은 지난해 탄생 150주년을 맞았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막을 연다. 그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가 '젊은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피아노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그 진수를 담아 연주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다.

협연에 나서는 피아니스트 이진상은 2018년부터 한예중 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위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 등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했으며 홍콩 쉐런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도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북유럽과 핀란드 등 북극 음악의 풍토가 깃들어 있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도 레퍼토리에 있다.

'전원 교향곡'으로도 불리는 이 곡은 시벨리우스 7개 교향곡 중 '핀란드'와 함께 가장 인기가 많다. 팀파니와 콘트라베이스, 첼로의 피치카토와 북극 특유의 서정, 드라마가 돋보이는 곡이다.

지휘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악대 학원에서 지휘학을 공부한 이병욱이 맡는다. 인천시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인제대 음악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초등학생부터 입장 가). /최류빈 기자 rubi@

전남문화재단, 선임직 이사·감사 공모

이사 9명·감사 1명 29일까지

올해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은 창립 15주년을 맞아 다양한 예술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도립국악단, 남도예술은행 운영 등은 물론 메가브랜드 공연을 유치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재단의 예·결산,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장 등에 기여하는 선임직 이사 및 감사 사를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사 9명, 감사 1명을 선발해 임명일로부터 3년 동안 직무를 맡게 된다. (1회 연임 가능)

이사직에는 문화예술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또는 경영, 문화예술, 문화유산

분야 등에 정책 제언이 가능하며 전략적 사고를 갖춘 자를 자격요건으로 둔다.

감사직에는 법률·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두 직무 모두 이사회 참석 시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보수도 지급할 예정이다.

기획경영팀 김정화 담당자는 "문화예술과 그 행정을 다루는 '문화재단'인 만큼, 감사직과 이사직 모두 식견 있고 역량 있는 지원자들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며 "정책 제언과 검토 등을 통해 재단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편(등기)이나 방문 접수 또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